

건설업 체감경기 2년來 최저

건설업계의 체감경기가 최근 2년 새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기업의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에 비해 6.7포인트 하락한 59.0을 기록했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지난달 CBSI는 2010년 8월(50.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7월에는 통계적 반등의 영향으로 CBSI가 4개월 만에 소폭 올랐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업체 지수가 80.0으로 전월에 비해 12.9포인트나 급락했으며 중견업체 지수도 46.2를 기록해 2009년 2월(40.6)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지수의 경우 49.1로 전월보다 4.3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50선을 밑돌았다. 하위윤기자